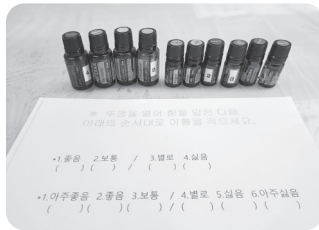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나만의 감정 오일 만들기



3월 30일 호스피스팀원들의 소진관리를 위해 감정 오일을 만들었다. 요즘 나의 감정이 어떤지 적어보고 말로 나누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나만의 감정 오일을 베이스로 미스트와 핸드크림을 만들어 선물까지 받아 가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4월 28일 호스피스 전인치료센터의 운영 전반을 위한 운영위원회회를 시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운영위원회회를 3년 만에 모여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밀집 부서와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예쁜 카네이션 화분과 꽃컵케이크를 선물하였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환자인 부모님에게 직접 드리며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매일 함께하는 환자와 가족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평소 말하지 못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증 캠페인



5월 31일 '다른 사람이 효과를 봤던 진통제를 복용해도 된다!' 라는 퀴즈 주제의 답은 X입니다. '통증의 원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 있는 약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퀴즈를 맞힌 분들에게 돌림판을 통해 선물을 드렸다. 또 중앙혈액내과 박지찬 교수의 강의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따뜻한 한상



6월 7일 간병으로 힘든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자 맛있는 도시락과 차를 제공하였다. 비록 코로나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직접 차린 밥상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세리늘병원

▶ 설맞이 행사



1월 20일 2023년 새해를 병원에서 시작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를 준비하였

다. 점심식사로 뜨끈하게 마음도 몸도 보양하기 위한 삼계탕을 함께 나누는 후, 환자와 보호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절의 전통 놀이 대명사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잠시나마 고통과 슬픔을 잊고, 웃고 즐기며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다.

▶ 소진관리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올해의 소진관리 프로그램의 1회는 모두 야외프로그램으로 출발

하였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필수인력과 보조 활동 인력이 함께 2차 수로 나눠서 진행하고, 호스피스봉사자 역시 야외에서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Go Walking, Go Working!”이란 주제로 회동수원지 둘레길, 현여울문화마을 및 절영해안산책로, 태종대 8경을 함께 걸으며 자연의 충만함과 여유를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 통증 캠페인



5월 25일 제 17회 통증 캠페인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를 진행

하였다. 직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통증 관련 리플렛을 제공하고, OX 퀴즈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통증 관련 오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암성 통증에 대한 오해를 알려주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후 친환경 장바구니를 선물로 증정하였다.

부산성모병원

▶ 설날 이벤트

1월 20일 설날을 맞아 새해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병동의 환자와 가족들, 팀원 간 새해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떡국과 전복죽으로 함께 식사한 후 투호, 고리 던지기 등 전통 놀이와 환자들께 필요한 선물을 나누며 웃음과 활력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 예수님 부활 축하 나눔



예수 부활의 축하와 참의미를 담아 환자와 가족들, 팀원들 모두에게 부활 계란 및 선물과 특식 오찬을 뷔페로 제공. 환자와 가족들 팀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기쁨과 풍요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어버이날 축하 카네이션 선물



어버이날을 맞아 병동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붉은 카네이션을 선물하면서 어버이의 큰 사랑을 기렸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들이 미처 찾아뵙지 못한 환자들께도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 캠페인



5월 26일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가 정착된 지 십수 년

이 되었음에도 현장에서 암성 통증 조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함을 인식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해마다 거듭하고 있다. 권역 캠페인 외 본원의 내원 환자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안내장과 홍보용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올바른 호스피스 인식 여부와 재고를 위한 퀴즈와 선물을 통해 재미를 더하는 장이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설 행사



1월 20일 국민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입원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덕담 옷놀이와 먹거리

로 풍성한 설을 보냈다. 병동 휴게실에는 설 현수막과 한과, 떡국, 전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하여 설 분위기를 내고 즐겨보았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소원을 빌어봐!’ 이벤트와 덕담 옷놀이를 통해 평소에 축스러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민속놀이를 통해 전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의 함께했던 명절도 떠올려 보고, 가족의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과 선물



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면회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행사 당일엔 자녀들의 참석을 허용하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음악연주에 맞춰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환자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사별가족모임



5월 25일 상반기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6개월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임종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초대하여 총 36명의 가족분이 함께하였다. 추모 영상을 보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꽃 봉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별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호스피스 나들이



5월 9일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4층 옥상정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푸릇푸릇한 나

무를 보고 싱그러운 풀 내음을 맡으며, 잠시나마 답답함 등 환기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컨디션 변화로 인해 함께 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 껍을 전달하고 나들이 기분이 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여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 부부의 날 맞이 포토존 이벤트



5월 18일 다가오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인조 잔디와 종이꽃으로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 촬영 이벤트를 시행하였다.

‘면사포(베일), 티아라, 보우타이, 부케’ 등 소품을 준비하여 포토존 앞에서 함께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벤트를 통해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부부, 가족 간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 모습을 보며 호스피스 팀원도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소진관리



5월 2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늘 헌신적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반려 식물 모듬 심기’를 실시하였다.

식물을 보고 흙을 만지는 작업을 통해 심신을 이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완성한 후

나눔을 통해 서로 간에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심청이(소원성취)프로그램 - 결혼 50주년 ‘금혼식’



4월 7일 병실에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했다는 배우자의 “심청이” 사연을 접수 받고, 민화 작가인 딸이 그린 십장생 병풍을 배경으로 금혼식을 진행하였다.

딸은 십장생에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부부의 밝게 웃는 모습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을 품는 날이었다.

▶ 부활 맞이 음악회와 식사 나눔



4월 14일 코로나가 약해지는 시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부활 맞이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가족이 면회 오는 시간을 앞당겨 ‘음악회’를 함께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첼로의 선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은 음악을 매개체로 한마음이 되어 잠깐의 안락함을 선물 받는 시간이 되었다.

▶ 봄 소풍



5월 25일 “치유의 숲”으로 환자와 가족을 모시고 소풍을 나갔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날짜를 하루 앞당겨 진행하게 되어 손주를 만나게 해 드리려는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아들과 딸이 함께 하게 되어 환자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소풍 후 병실에 올라온 후 샌드위치 도시락과 호스피스팀이 기증한 선물로 “행복한 나눔” 뽑기를 진행하였다.

▶ 통증 캠페인

6월 12일~13일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마약진통제의 오해와 진실로 퀴즈와 홍보를 진행하였다. 총 898명이 참여하여 암성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사별가족모임



6월 22일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임종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코

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준비하였다. 미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고인에게 쓰는 편지, 식사 나눔으로 가족들과 함께 큰 위로와 감동을 나눌 수 있었다.

사별가족은 호스피스팀의 환대와 따뜻한 마음

에 힘을 얻고 간다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해 주었다.

익산성모병원

▶ 부활절 음악회

4월 6일 부활절을 맞아 환자와 가족에게 작은 음악회를 열어 송지은 방사선사의 바이올린 연주와 서은희 사회복지사의 피아노 연주로 수녀님들과 직원들의 아름다운 부활절 성가와 마법의 성을 불러드렸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환자, 가족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어버이 은혜를 불러

드린 후 다과를 함께 하며 정서적 지지를 해드렸다.

▶ 이벤트



5월 24일 환자,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 힐링 푸드 행사로 토마토 바질 에이드, 토마토 카프레제,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 시식하고 가족과 가족 간에 대화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 직원 소진프로그램



5월 25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왕궁 포레스트에서의 족욕과 물멍, 아열대 온실의 식물을 관람하고 산책하며 치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서로의 대화를 들어주며 코로나 시대에 겪은 마음의 부담을 털어내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 통증 캠페인

6월 15일 병원 로비에서 통증 캠페인 행사가 있었다. 직원과 외래환자 봉사자 150분이 참석한 가운데 통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오해를 설명하고 ox 퀴즈 풀기, 홍보용 팜플릿과 선물로 usb, 칫솔, 여행용 티슈를 나누어 드렸다.

천주의 성모한의원

▶ 생일잔치



생신을 맞은 입원 환자에게 생일 축하와 선물을 전하고 사진 촬영을 해드리며 환자와

가족 간에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부활절 행사



4월 8일 부활절 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부활절 다과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힐링 타임 작은 음악회 (색소폰 공연)

4월 11일 작은 음악회를 통해 입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환기, 휴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 맞아 생화 카네이션과 다과를 전달하고 어버이날 노래를 함께 부

르며 어버이의 사랑과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반의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암성통증에

대한 관심 유발과 올바른 지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가톨릭의료원 8개 부속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EMR 표준화 프로젝트

2022년 12월 14일 개최된 세미나를 시작으로, 가톨릭의료원 8개 부속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실무자 14명과 연구소 인원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호스피스연구소를 주축으로 8개 병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nU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EMR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mPACT review 국제 자문단 자격 참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imPACT review-in country mission에 국제 자문단 자격으로 김수정 참여교수를 파견하였다. imPACT review는 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암 관리 체계 수립 및 개발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며, 이번 imPACT review는 캄보디아 의료체계를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3월 김수정 교수는 캄보디아의 현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NGO 단체에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캄보디아 보건부, 캄보디아 내 암 관리 관련 NGO 단체, 각국의 Foundations 단체가 참여한 전체 회의에서 캄보디아의 완화의료 현황, 정책 및 예산 수립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제1회, 2회 이사회

2월 1일, 5월 9일 Zoom 회의로 제1회 이사회에서는 황관옥 회장이 2022년 결산과 사업 보고 및 2023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고, 제16회 정기총회 및 기관대표자회의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제2회 이사회에서는 76호 협회지 발간과 제23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프로그램과 APHC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제16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023년 기관대표자회의



3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18명의 대의원과 27명의 기관대표자가 참석하여 2022년 사업 보고, 회계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심의를 하였다. 기관대표자회의에서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 운영」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 Sr.박명희 팀장님, 대전성모병원 강은미 파트장님, 은평성모병원 Sr.조은경 팀장님이 발표하고 각 기관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였다.